

교회소식

- 예배 후에 전 교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예배실). 다음 주일은 네팔과 루마니아 공동체 촬영이 있습니다.
- 2022 대심방을 공동체별로 2월 1일(화)부터 실시합니다. 공동체장들은 준비 바랍니다(화, 수, 목, 금. 심방일지 참조).
- 전교인 야외 예배를 2월 7일(월)에 공동체별로 갖습니다.
시간: 오전 10시 30분
장소: 36 Sylvan Park Avenue, Milford, Auckland
주관: 행사 진행부
- 해저 화산 폭발로 큰 재난을 당한 통가를 돕기 위한 도움의 손길을 펼칩니다. 헌금을 하실 때 반드시 헌금 봉투에 '통가 재난 헌금'이라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선교회에서는 2022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목요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에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친교 시간에 떡을 제공한 이옥화 집사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장녀 결혼 감사).

January

교회사역일지

1월 2일(주일)
신년 주일
1월 9일(주일)
성찬 주일
1월 16일(주일)
제직 주일

기도순서

1월 30일 (주일)
장경희 집사
2월 2일 (수)
가정 예배
2월 6일 (주일)
김교섭 장로
2월 9일 (수)
가정 예배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김창조, 김명옥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211 Great South Rd,
Greenlane,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
/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발췌 4:6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3:30 pm
청년예배 3:30 pm
유아부 3:30 pm
아동부 3:30 pm
청소년부 3:30 pm
수요예배 -
목요기도 7: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4권 4호 2022.01.23

주 일 예 배	오후 3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름	에베소서 4:22-24	인도자
* 찬 송	27장	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다함께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92장	다함께
대 표 기 도		이정인 집사
성 경 봉 독	마가복음 6:45-52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내 모든 것을 주께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내니 두려워 말라	이태한 목사
찬 송	370장	다함께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다함께
* 응 답 송	411장 (1,3절)	다함께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교란

이번 주는 캄보디아 이형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1. 선교지 상황: 캄보디아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훈센 총리는 양성자가 나와도 더 이상 학교나 사업장, 시장 봉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면서 관광용 e-Visa 발급을 재개했으며 전국의 초 중 고교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이는 워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2. 목회 및 전도사역:

1) 생명나무 장로교회: 코로나 방역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11명의 세례자들을 지난 7월과 8월 세 번으로 나누어서, 예배당에서 포함 각기 장소를 달리해서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세례식으로 다양하게 세례를 집례 했습니다. 오는 1월 23주일 2022년 첫 세례식과 함께 공동의회를 갖고 장로피택을 위한 선거를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특히 아동부 어린이 사역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수의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인력과 캄보디아의 열악한 기반 시설과 여건상 코로나 이후 어린이 사역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캄보디아 교회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2) 전도사역: 매월 격주로 기존 성도의 가정을 심방하며 더불어 불신 가족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불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저희 전도사역의 주력 사역입니다. 더불어서 지루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은주 선교사는 이제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매우 좋아하는 한국 김치를 손수 담가 나눠 들고 이웃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3) 생명나무 센터내 생명나무 유치원: 10월 11일부터 등교 재개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등교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군청 교육부 최고 담당자의 연락에 힘을 얻어서 바로 등교를 재개했고 지난 12월 29일 5기 졸업식을 갖고 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보고를 드렸듯이 센터 주변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마을 이장을 포함해서 유치원 주변의 학부모들이 유치원 교사 충원과 교사 확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생명나무 장로교회가 조직교회로 세워지도록(장로 2명 피택을 위해서).
2.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어린이 사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목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청소년부실)

찬	양	-
성	경	마가복음 1:1
경	봉	복음의 시작이라
설	교	이태한 목사
기	도	-

나눔란

2022년 1월 16일 주일에배 설교말씀 <선한 청지기 같이> 베드로 전서 4:7-11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청지기입니다. 만물뿐 아니라 영혼과 몸,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출 19:5, 시 24:1, 학 2:8, 레 25:23, 겔 18:4, 고전 6:19). 우리가 그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 해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뿐입니다(대상 19:14).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1) 깨어 있는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오실 때가 된 것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7). 깨어 있다는 것은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발람이나 팔죽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에서와는 달리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비진리가 진리로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뿐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과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삼킬 지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벧전5:8-9). 풍량이 이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베드로처럼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파도의 환경으로 옮겨갈 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막 14:9).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깨어 있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2) 열심으로 사랑하는 청지기: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마 24:12).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의 원인은 사랑이 식은 데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수고와 인내와 믿음과 열심으로 칭찬을 받았으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계 2:4).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을 찾으십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고전 13:1-3). 이 세상은 마치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어 가듯 참 사랑이 희귀한 세상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이 참 사랑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셰핑 Elisabeth Shepping 선교사의 삶처럼 사랑의 가르침이 아닌 사랑의 실천이 이웃을 살립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마 20:26-28)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작은 언행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담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3)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는 청지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고전 4:7). 구원도 선물로 받은 것이며(엡 2:8) 각양 좋은 은사는 다 위로부터 온 선물입니다(약 1:17). 하나님께서는 섬기고 봉사하라고 이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이미 각 사람에게 주셨기에 각각 그 은사에 더하여 주신 돈과 자원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둘 때 책망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마 25:15).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또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11). 누구를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섬겨야 합니다(행 20:24). 각양의 받은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최후 순간까지 외치는 자야말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삶을 통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선한 청지기로 사는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신앙인 다운 능력과 영적 성숙의 삶을 살도록.
2. 모든 성도들이 불편한 환경을 이겨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3. 영육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